

어느 정년 퇴직자의 하루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5월이다. 무등산이 쭈욱 내게 다가왔다. 나무들이 초록색 나뭇잎으로 성장(盛壯)해 높아지고 품이 넓어졌다. 길가에 나뭇가지들이 초록색 손을 쭈 내밀고 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정년퇴직자로서 다시 산을 올라다보니, 새삼스럽게도 참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들이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을 우리는 다 초록색깔이라고 부른다. 나무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다. 나름대로 다른 색깔로 옷을 해 입었는데 무신경하게 동색(同色)이라고 부르니 말이다.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직하고 인생 2막을 맞이한 나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각자 나름대로 색깔을 지니고 이모저모 생각과 모양이 특별한 것이다. 한꺼번에 통쳐서 정년퇴직자라고 불리는 것이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 정년퇴직 후 나는 오히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몹시 바쁘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다.

지난 가을과 겨울 내내 잠에 원수를 진 것처럼 긴 잠을 잤다. 이른 저녁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청했다. 부러움을 감고 일어나고 싶을 때까지 몽그적거렸다. 문득 하루의 삼분의 일을 자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불안하기는커녕, 실컷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오졌다. 신기하기도 했다.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30대 초반 두 아이를 양육하며 멀리 함평까지 출퇴근하던 시절, 가장 부러운 것이 췌근췌근 자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나도 그 옆에 누워있고 싶었다. 같이 따스한 체온을 나누며, 가슴에 품고 조용하고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간절함은 언제나 간절한 것으로 남았다. 어느 날은 정해진 출근 버스 시간에 좀 늦어서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발 균형이 맞지 않았다. 내려다보니 신

발을 짹짹으로 신고 있었다. 그 난감하고 심란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의 깊은 상흔을 상쇄시킬 위로(복수?)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때 난 내 짹짹이 신발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더 빨리 뛰었다.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서 나 혼자, 혹은 친구들과 무등산 숲 걷기를 하고 있

나이 들고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나의 오랜 로망이었다. ... 난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 간다. 아파트 넓은 창문 옆 식탁에 퍼지는 아침 햇살에 느긋함이 더해지니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간다.



다.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만난다. 산 아래 주차장에서 아침 10시에 만나 편백나무 숲도 걷고, 증심사 산책길이나 동적골 숲길도 걷는다. 보리밥이나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을 같이 하고 수다를 떨다가 헤어진다.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였다. 따스한 햇살 맞으며, 천천히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 더덕 냄새 맡아가며 나무들이 뿜어내는 빛의 향연과 에너지를 누리는 것을 늘 꿈꿨다.

느긋하고 한가한 그 시간이 아직은 현실감이 없다. 이것이 꿈인가? 하며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주말이라면 더 늦기 전에 돌아가 일하러 나갈 준비해야 하는 건가? 낯은 걱정에 미간 주름이 잡힌다. 아니, 난 자유인이야. 괜찮아. 아무 걱정 없어~하며 미간의 주름을 편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잡고 환한 웃음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40대 초반, 완도 노화도 섬마을 선생님이 시절 갑상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다. 초기 암이라 간단하게 처리하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봄방학 기간에 서둘러 수술을 진행시켰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성대가 다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간구와 기도를 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수술 자리는 잘 아물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섬 학교라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힘들었다. 휴직을 할 수 없어 병가 2개월을 냈다.

2개월의 쉼이 나를 살렸다. 100m 달리기 하듯 달려온 삶이 멈췄다. 그 때 오랜 친구가 다가와 숲 속을 함께 걸어주고, 햇살의 존재를 알려줬다. 집 밥을 해주고, 낯잡자리를 마련해 줬다. 병이 걸릴 정도로 몸이 힘든 것을 모르고 내달렸던 내게 숲, 햇살, 친구는 신세계였다. 그렇게 아프고 난 더 건강해졌다. 난 이미 햇살, 숲, 걷기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이 들고 시간이 허락하면 난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나의 오랜 로망이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중년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치며 숲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

난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담양 내고향 사랑 텃밭에 간다. 3평이지만 두 식구가 먹고 남아 아이들에게도 나눠 준다. 그곳은 비닐하우스 안이라 1년 내내 상추 등의 야채를 가꾸 먹을 수 있다. 거기에서 내가 심고 가꾸고 키운 싱싱한 야채를 아침 식탁에 올린다. 건강한 채식이 학교 급식을 대신하고 있다. 학교 급식처럼 맛있고 비용가치 높은 식사가 있을까?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과 같이 맛있게 먹다보니 아무리 조심해도 체중과 전쟁에서 늘 참패를 당했다. 지금은 내가 이긴다.

텃밭에서 막 뜯어온 야채는 그 사근사근한 식감과 싱싱한 향이 마트나 장에서 구입해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땅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을 난 느낀다. 저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은 없지만, 아침 식탁에 야채 샐러드를 올리는 것으로 난 만족한다. 아파트 넓은 창문 옆 식탁에 퍼지는 아침 햇살에 느긋함이 더해지니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만이라도



‘수업 중 휴대폰 게임하는 학생을 제지하자 교사 폭행’이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교사 폭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교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군사부일체’라는 정신은 이제 옛이야기일 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1990년대 필자가 RCY 부서에 근무하던 시절, 매년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진행했다. 그 훈훈한 장면은 일간지 1면을 장식하곤 했다. 스승의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고 단원들이 병중이나 퇴직한 선생님을 찾아뵈 봉사에서 비롯되었고, 1964년 청소년적십자(RCY) 중앙학생협의회가 스승의 날을 공식 제정하였으며 적십자사는 ‘스승의 날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5월 15일은 그렇게 스승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스승의 날 행사는 점점 사라지고, 교권의 추락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나마 RCY가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수기 공모전, 사제 동행 제빵 봉사 등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또 하나, 선생님과 다르게 부모 세대는 팬찮은가?

우리 사회는 일찍이 급속하게 고령화되었고, 노후를 준비 못한 1960년

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벗어나기 더 어렵게 되었다. 이리다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천원식당이나 무료 급식소가 개소하고 붐비는 상황은 씁쓸한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2만 건을 넘어서며 공경심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부모, 부모 세대의 고난과 헌신 덕분이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미니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는 과거 부모 세대의 고단했던 삶과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후세대들이 부모와 어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결코 부모와 윗세대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나눌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누고, 자식은 감사하며 또 그 자식에게 회생하고 나누며, 또 그 자식은 감사하고 나누는 선순환이 어찌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 모른다.

그렇기에 이 선순환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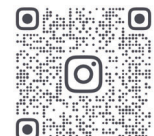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일부 굳어지면서 사은회, 어버이날, 노인 위안 행사 등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더 줄어들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존경과 감사를 담은 축제를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월은 감사의 달이다. 가족과 선생님들은 물론 이웃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보자. 꼭 선물이나 안부 문자가 아니더라도, 그저 감사하는 마음만이라도 가져보면 어떨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